

## 직물용어 해설-04

### \* 모슬린(Muslin)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모, 견, 나일론, 비닐론,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면 모슬린은 경위사에 80's~100's의 단사를 사용하여 밀도 100×85올/inch 정도의 밀도로써 제작한 얇고 부드러운 촉감의 평직 면포였다. 일본에서 모슬린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직물은 얇은 평직의 소모 직물이다. 메린스 또는 간단히 모스라고도 하고 당축면(唐縮緬)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 표백, 무지염, 날염 우선염(友仙染) 등으로 하여 사용한다. 날염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되는 모직물의 하나이다. 용도는 기모노, 요대, 안감 등이다. 레이온, 나일론, 비닐론으로 한 모슬린은 모두 소모 모슬린에 태가 나오도록 연구하여 제작 마무리된다. Muslin은 프랑스어의 mouseline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또 아라비아어의 musili의 발음이다. 그리고 이 말은 더욱이 이러한 직물의 원형을 제작하기 시작한 이소포타미아의 도시 모슬(Mosul)의 명칭에서 찾는다. 용도로는 면 타입의 것은 커튼, 드레스, 아동복, 에프론, 심지, 안감 등으로 소모 타입의 것은 기모노, 안감 등으로 사용된다.

### \* 모아레(Moire)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견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주로 이랑직으로 제작한다. 모아레(Moire) 모양(watery mark, open wood grain)을 직물 면에 부여하는 마무리 공정의 이름인 점과 더불어 그 마무리에 따라서 직물면에 모아레 모양을 나타낸 모양의 이름도 있다. 모아레 마무리는 특수한 조각을 시행한 금속 롤러(무수히 가는 평행선을 조각한 것으로써 인치당 선의 수를 모아레 마무리를 시행한 직물의 인치당 타입 수에 거의 같은 것. 축에 평행한 선 외에 더욱이 이것을 작은 각도로써 교차하는 한 조의 가는 평행선을 조각한 것도 있다.)를 사용하여 강한 압력을 주어 칼렌더 마무리를 행한다. 이랑직물에 시행하면 가장 좋은 성과가 얻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인 것으로써 세탁하면 없어진다. 그러나 아세테이트 등의 열가소성인 섬유로써 제작한

직물에 시행하면 모아레 모양은 언제까지라도 남는다. Moire는 프랑스로써 모아레를 부여한다. 물 모양을 부여한다(to water)고 하는 의미의 동사 moirer의 과거분사형이다. 이브닝웨어, 칵테일 드레스, 가운, 내의, 커튼, 베드 스프레드, 드레이퍼리, 법의, 장식 등이다.

\* 모켓(Moquette)

의자감 등에 사용하는 경파일 직물

\* 모크리노(Mock Leno, Imitation gauze)

레이온, 아세테이트, 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얽힘직에 의하지 않고서 사(紗)와 같은 외관을 갖게 한 직물이다. 모크리노는 조직명임과 동시에 그러한 조직에 의한 직물명도 있다. 모사, 의사, 목투직 등이라고도 불려지고 영어 명칭도 imitation gauge라던가 레이스 상태의 공간 효과를 갖는 것으로부터 imitation lace라고도 불려진다. 이러한 조직으로 제작하면 경사끼리 위사끼리 각각 휩쓸려 속상으로 되어 경위사의 속의 조합 사이에 간격을 만들 수 있다. 대체로 두꺼우나 부드럽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늘하고 여름용 의류에 좋다. 여름용 와이셔츠, 블라우스, 원피스, 아동복, 부엌 타월, 커튼 등으로 사용한다.

\* 몬타나 코팅(Montana coating)

영국에서 쓰이는 용어. 2가지 색조의 코드(cord)가 있는 여성 모직 외투이다. 9매 또는 10매로 일 순환이 되고 경위사의 색이 다르다.

\* 몬타낙 직물(Montanac cloth)

① 잔털이 있는 아스트라칸 파일(Astrakhan pile) 방모 직물로 부드럽고 따뜻하며 단단하다. 1864년 프랑스에서 발명한 것으로 발명자인 Baron de Montanac이 제직이 끝난 것을 물에 적시어 단장으로 강하게 두들기자 잔털인 파일이 생겼으므로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외투용으로 쓰인다.

② 천이 두껍고 축융 되어 표면의 잔털이 구슬 상태로 말려 있는 옥라사(玉羅紗).

\* 몰스킨(moleskin)

두더지의 모피와 같은 태와 외관인 강한 직물. 원래는 퍼스티언(fustian)형의

면 능직물이며, 위사가 많다. 주로 작업복에 사용되었다. 경사에는 Ne24's/3와 Ne 16's를 위사로 하여 40×360을/inch로 하여 조직시킨다. 8매 위주자직이고, 제직 횡 짧게 털깎기를 하여, 스웨드와 같은 가공을 한다. 이 용어는 옛날 직물인 아라비아어의 몰킨(molequin)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 바둑판 무늬(Dice Pattern)

경위사 방향으로 능직 또는 주자직의 일정한 사각형의 무늬가 전혀 반대의 무늬와 함께 교대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바둑판에 바둑돌이 놓인 것처럼 생긴 무늬를 말한다. 조직상으로는 체크 보드 주야 조직이라고도 한다. 테이블 클로스나 드레스용 직물로 쓰인다.

\* 베러디어(Barathea) : 경사에 생사, 위사에 소모사 또는 생사를 사용한 변화 위두둑 조직의 고급 복지로써

① 메리노 종의 세사인 소모사를 사용하고 불규칙 두둑 조직으로 한 흑색 무지의 소모 직물로써 축융 기모한 것이라던가 기모 하지 않은 것이 있다.

② 경사에 견, 위사에 모사를 사용한 불규칙 두둑 조직의 고급 드레스감이다.

\* 배티스트(Batiste)

부드럽고 가벼운 평직물(옷감, 안감 등)

\* 백스킨(Back skin)

우단 또는 위주자의 원단을 사용하여 산양 가죽과 같이 부드럽게 가공한 것으로 점퍼, 구두, 모자, 핸드백 감 등에 사용한다.

\* 버크람(Buckram)

면, 리넨 등을 사용하는데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치즈 클로스 급의 울이 성긴 2매의 면직물을 아교플로써 붙인 것이다. 1매는 태번수의 실로써 특히 성기게 제직하여 망과 같은 간격이 있다. 또 다른 1매는 다소 가는 실로써 약간 조밀하게 제직한다. 촉감은 거칠다. 또 하나는 1매의 마직물로써 소맥분 풀과 아교플로써 아주 강하게 마무리한 튼튼한 직물이다. 또 경사능으로 20's~26's의 면쌍사를 사용하고 밀도는 20×20~24×24을/inch로써 평직으로 하여 제직 후 딱딱하게 가호하고 에라스틱 마무리하여 표백 또는 무지염으로한 면제품도

있다. 이것은 흡색 스크림(hopsack scrim)이라고 불린다. 아교풀로써 가호한 것도 적지 않다. 모두 증열하면 가소성이 생긴다. 어원은 페르시아어의 buckara이다. 이 말은 현재 우즈베크 공화국의 보카라(Bokhara)에 어원이 있다. 베크람의 원형의 직물이 이곳에서 제작된 듯하다. 책의 덮개, 옷의 심지, 스커트의 안감지, 여성용 모자 등으로 사용한다.

\* 법단

주자 바탕에 단일세4이고 비교적 작은 무늬가 있는 모본단보다 얇은 견직물

\* 비니션(Venetian)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모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면 비니션은 보통 실케트 가공을 한 단사라던가 쌍사로 제작한다. 조직은 5매라던가 8매의 경주자이다. 직물 면에는 급한 사문선(주자선)이 나타나 보인다. 백색인 채로 또는 무지염, 날염하여 사용한다. 촉감은 매끄럽고 튼튼한 직물로써 다른 면주자보다도 울이 많고 두꺼운 직물이다. 모직의 비니션으로는 소모와 방모가 있다. 모두 양질의 세번수의 경사를 뽁뽁하게 배열하여 5매의 경주자로 제작한다. 주자선이 급한 각도로 나타나 보인다. 경사 소모, 위사 방모의 것도 있다. 아세테이트나 아세테이트 비스 혼방 또는 아크릴이나 폴리에스터 혼방의 비니션도 있다. 보아서 바닥이 양호하고 소모 직물로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 용도로는 면을 사용한 것은 드레스, 쿠션 커버 등으로 모라던가 합섬을 사용한 것은 코트, 신사복 등으로 레이온을 사용한 것은 여성복지 등으로 사용한다.

\* 벽縮緬(Kabe Crepe)

섬유 : 견, 레이온 등을 사용하여 평직, 능직, 주자직으로 제작하는데 경사에 무연사를 위사에 벽사를 사용한 측면의 일종이다. 벽사는 벽연사라고도 한다. 연사의 일종으로써 굵은 울의 실에 약간 강한 가연을 가하여 이것에 가는 울의 실을 당겨서 상연(통상 우연으로써 하연보다도 꼬임이 적다)을 준 것이다. 가는 실을 축으로 하여 굵은 실이 라선상으로 얽혀 감겨져 있다. 가는 W고의 실을 심사, 굵은 쪽의 실을 태사 또는 지사라고한다. 벽측면은 단순히 벽이라고도 한다. 견의 벽측면과 인견의 벽측면이 있다. 견의 벽측면은 경사도 벽사의 태사,

심사 모두 생사를 사용한 것이다. 인견의 벽측면에는 견심벽과 인심벽이 있다. 모두 인견벽이라고도 한다. 견심벽은 경사에 무연의 인견을 위사로 생사를 심사로 하고 인견사를 지사로 한 벽사로 사용한 것이다. 인심벽은 심사, 지사 모두 인견사를 사용한 벽사를 위사로 사용하여 경사에는 견심벽과 같이 무연의 인견사를 사용한 것이다. 쌍인벽이라고도 한다. 용도는 원피스, 투피스 등이다.

\* 베니스직(Venise weave)

모사직의 일종이며 4올 짜마다 틈새를 만든 것으로 얇은 천으로 된 것은 날염하여 여름철의 여성복과 아동복감으로 두꺼운 것은 와이셔츠 천으로 사용되고 한 가지 색으로 염색하여 수출되고, 정식으로는 모사직(Imitation gauze) 또는 모크 레노(Mock Leno)라고 한다.

\* 베드포드 코드(Bedford cord)

직물의 경사방향에 두둑이 연속하여 나타나 있는 직물로 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 벨루어(Velour)

섬유 :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모, 폴리에스터, 아크릴, 아세테이트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침모직, 사문직, 주자직 등으로 제작한다. 벨루어라고 부르는 직물에는 아주 다른 2종류가 있다. 하나는 경모 침모직으로써 보통 이중 빌로드직으로 제작한다. 브러시의 별칭이라고도 생각되지만 털의 길이가 1~3.5mm 정도의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벨벳에 비하여 두껍다. 잔털을 불규칙하게 털을 눕힌 것을 클러시드 벨루어(crushed velour)라고 한다. 거친 맛을 갖는다. 또 하나는 벨루어 마무리를 행한 모직물을 가리킨다. 경사에 방모사라든가 소모사, 위사에 방모사를 사용하여 위능이라든가 위주자로 제작한다. 축융은 7~20% 정도로 시행하고 견식 티즐 기모 등으로써 길게 기모한다. 전모는 표면을 꼼꼼하게 이면을 가볍게 하는 것이 많다. 솔질하고 압융하여 마무리한다. 부드럽고 팽만한 촉감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모의 상급인 것을 위사에 혼방하는 것도 있다. Velour의 vel은 velvet의 vel과 마찬가지로 양모의 부드러운 털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vellosus에서 유래하고 있다. 역시 velours는 프랑스어로 양모 벨벳을 의미한다. 벨비틴은 면이기 때문에 특히 velours de cotton이라고도 한다. 또 벨반틴(velvantine, velventine)이라고도 한다. 앞서의 프랑스어로 코듀로이는 velours cotele이다. 용도로는 침모직으로 제작한 것은 드레스, 코트, 모자, 콤팩트의 분첩 등으로 기모직물로 한 것은 드레스, 코트 기타 여성복지 등으로 사용한다.

\* 벨벳(Velvet)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면, 폴리에스터 등을 사요한 침모직으로 벨벳(velvet)은 빌로드라고도 한다. 모경사로써 잔털 올가미를 만드는 것으로써 경모 빌로드직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제작한다. 벨벳은 조직의 명칭임과 더불어 그러한 조직으로 만든 직물의 명칭도 있다. 경모 빌로드직으로 제작한 직물에는 그 외에 브러시가 있다. 벨벳은 브러시에 비하면 잔털이 짧아 0.3~1mm 정도이다. 브러시는 1mm 이상이다. 벨벳에는 경이중 빌로드직과 이중 빌로드직이 있다. 현재는 후자 쪽이 많다. 모경사로써는 견, 인견(비스코스 인견사, 아세테이트 인견사), 작잠견, 나일론 등을 사용한다. 고급품은 모경사 뿐만 아니라 지경사, 지위사 모두 견을 사용하는데 보통제품에는 모경사와 지경사만을 견을 사용하고 위사는 다른 섬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바닥은 경위사 모두 견 이외의 섬유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많다. 바닥은 평직이나 사문직으로 조직시킨다. 통상 사염 한다. 색조는 농감색, 흑색, 해로차(海老茶), 緋色(주홍), 백색 등이 많다. 바닥과 털에 대조 색을 사용하여 털 세움을 약간 성기게 하여 바닥 색을 투과하여 보이게 하여 옥충 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다. 금사라던가 은사를 짜 넣는 줄 문늪을 넣은 것도 있다. 올 수가 적고 비교적 가벼운 것을 시폰 벨벳(chiffon velvet)이라고 한다. 털끝은 짧고 치밀하다. 이중 빌로드직이 많다. 잔털에 길고 짧게 만들어 긴 털로써 무늬를 나타낸 것을 엠보시드 벨벳(embossed velvet)이라고 한다. 시폰 벨벳은 바닥 경사 및 위사에 경사를 파일 경사에 인견사 등을 사용한 경과일 직물을 말하며 바닥 경사와 위사에 경사를 2올 꼬임을 한 실 또는 견 꼬임사를 사용하고 파일 경사에는

꼬임을 주지 않은 경사 또는 인경사를 사용한 벨벳 직물이다. 파일 경사는 인경사 120d, 바닥 경사는 생사 14d를 3올로 꼰실, 위사는 생사 14d를 3올 꼰실을 밀도를 파일 60개/2.54츠, 바닥경사 120×168올/2.54cm 정도에 폭은 보통 91.44cm(36inch)이다.

용도는 솔, 의복의 장식 등에 사용된다.

\* 벨비틴(velveteen)

면, 레이온 등의 섬유를 사용한 침모직으로 면의 위모 빌로드를 별진(velveteen)이라고 한다. Velveteen은 조직명도 있고 그러한 조직으로 제작한 직물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직물의 명칭도 있다. 위모 빌로드직은 경사와 지위사 및 모위사로써 제작한다. 하나의 지위사와 다음의 지위사의 사이에 통상 2올, 때로는 3~5올의 모위사가 타입 된다. 모위사는 3올, 5올 또는 7올 때로는 9올(이러한 올 수를 증가시킬수록 부출 길이는 길게 되어 잔털이 길게 된다)의 경사의 위를 부출하여 그 다음의 경사와 조직한다. 즉 경사의 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바닥으로 짜여진다. 모위사와 경사의 조직점은 적당히 규칙 바르게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두면 부출한 모위사를 절단할 때에 잔털은 직물면에 한결 같은 모양으로 세워진다. 제작한 후 평평한 대위에서 2m 정도씩 풀어내서 무늬가 부여된 예리한 칼로써 부출한 모위사의 가운데 정도를 절개하여 잔털을 세운다. 부사의 절개에는 숙련이 필요하다. 상당히 숙련공이라도 한 필에 몇 개소 정도는 직물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위지사와 경사는 평직이라던가 능직으로 조직된다. 능직을 능별진(陵別珍)이라고 한다. 사용하는 실은 통상 경사는 60's/2 쌍사라던가 30's 단사를, 위사는 지위사, 모위사 모두 30's 단사를 사용한다. 직상 38inch×31.5야드, 한 필의 무게가 5.810kg인 것과 6.750kg의 것이 표준품이고 각각 실오오(實五五), 실입이라고 한다. 무지염 또는 날염한다. 특수한 합성수지를 함유한 날염한 날염호로써 형압 날염한 것은 형압의 효과가 영구적으로써 외관, 품미가 우수하다. 별진은 영어의 velveteen에서 빌려온 취음자이다. Velveteen은 약센트가 뒤에 있어 베틀이 강하게 들린다. 그래서 베틀으로써 별진을 빌려 아울러 특별히 진귀한

직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일 것이다. 1916년에 동경 환평의 송정량보씨가 별진 족대의 상표로써 의장등록을 하였으나 어느덧 별진 원단의 보통 명으로 되었다. 드레스, 코트, 슈트, 리조트 풍의 재킷, 침대 깔개, 실내 장식, 의자 덮개, 족대표, 주머니 안감 등으로 사용한다.